

사사들의 한계와 만왕의 왕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사사기-

사사기 21:25, 요한계시록 17:14

정 윤 돈 목사님

* **삿21:25**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계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되다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제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과 찬양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보좌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면에 있어 병들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를 통해 깨닫기 원하시는 응답과 해답을 말씀으로 얻으며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떠한 싸움에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사탄의 망대가 가득하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다.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울까? 잘못된 생각으로 짓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망대를 박살내야 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고, 복음이고, 말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와 사사들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된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요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수천 년 동안 어려움 당하며 광야, 포로, 노예 생활하고 6백만 명이 학살되고 지금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모든 재앙, 저주, 전쟁이 끝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 어느 순간 교회를 때려친다.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다가 결국 시험되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 신앙생활에는 천 단계, 만 단계가 있다. 내 신앙생활의 단계를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은 주일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 반면 어떤 분은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힘들어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과 ‘세계복음화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전도하시면서도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세계복음화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저는 당시 왜 동기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마음에 세계복음화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보여주신다. 제게 선교가 소중하고 가치있고 필요하며 재미있음을 알려주셨다.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혼과 영이 다 죽게 되어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사’란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던 군사, 정치, 재판과 종교를 모두 포함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즉 사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진 자들이었다. 히브리어로는 “쇼팻”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도자’를 의미한다.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 같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고 있다. 사사시대의 기간은 약 350년이고, 이 중에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 기간은 100년, 사사들의 통치와 지도로 평화로운 기간은 250년이 있었다. 사사가 여러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한다. 여호수아, 웃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지만 복음이 없어지고 사사가 없을 때에는 재앙이 임했다. 부모님 중에는 도움을 많이 준 부모님도 있고 피해를 준 부모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금 못나도 부족해도 부모님이 있어야 한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이 부족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모두 뛰어넘어서 사사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지도자를 살리고 영적 리더자를 살리고 선생님도 살리고 직장 상사를 살려야겠다. 그러한 부모, 영적 지도자, 대통령, 선생님들은 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한다. 말로만 왕, 주인이 아니다. 말로만 왕이라고 고백하면 조금만 문제 생길 때 인상 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강단메시지, 성경말씀이 떠올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체질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참된 축복이 몰려온다. 동해의 오징어 배를 보면 단지 빛을 켜놓기만 하는데 고기를 잡는다. 모두 빛의 자녀들이 되 시기를 바란다. 그 비밀은 복음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의지, 경험, 판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이다.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14명이다. 최초의 사사는 웃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많은 부족한 사사들이 많았지만 사무엘은 모델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얼마든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다. 성전에서 생활하는데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녀가 훌륭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을 보고 흔들린 적이 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후대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 결국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웠다. 사무엘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여자 사사는 드보라 1명인데, 드보라는 흠이 없는 사사였다. 또한 웃니엘도 흠 없는 사사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역할을 한 대사사 6명은 웃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임다, 삼손이고, 소사사 6명은 삼갈, 돌라, 야일, 임산, 엘론, 압돈이다. 기타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이다.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구원하시는 4가지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기간, 하나님 나라의 기간이 길어지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기간이 줄어든다.

1. 백성들과 사사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다. 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불순종을 범하였다. 사사기 1장 27절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방인을 내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으나 여러분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 구별된 자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취미와 시간과 주변 친구도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만 예배드리고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분이 있다. 세상적,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 말씀을 보면 사탄,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결심하고 나가지 않는다. 예수 믿고 모든 걸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 바뀌어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훨씬 행복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였던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처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이방결혼까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방결혼까지 한다. 이렇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도도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제자도 삼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뿐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엄청난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매우 소중하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야 한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다문화 제자가 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명문가라 고백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② 둘째로,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까지 하였다. 사사기 2장 1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다. 먹고 사는 것,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다. 축복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돈, 이익 앞에는 사람이 이상해진다. 가장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과 돈과 이익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먹고 사는 우상을 섬기다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건강할 이유도 전도와 선교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에 방해가 된다. ③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다시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범하였다. 사사기에 보면 타락, 징계, 부르짖음, 회복, 평화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조금 회복되면 타락한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 돈 액수에 따라 짓는 죄가 다르다고 한다. 5만원 있으면 5만원 어치 죄, 10만원 있으면 10만원 어치 죄를 짓는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반복된다. 중독만 문제가 아니다. 염려, 근심, 걱정, 흑암, 교만, 고집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다.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으로 결단 내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새 것이 되면 행복해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다. ④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소견’이란 단어의 의미는 눈, 견해, 사상, 판단, 생각, 주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여러분의 체질, 인격, 삶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는 오직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내 소견과 경험에 옳은 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기도하고 전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깨달음을 주신다. ⑤ 그들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스라엘과 후대들이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른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르비딤에서 물을 주신 것도 잊어버렸다. 말씀과 제사와 율법도 잊어버렸다.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 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증인으로 아이들과 포럼하는 게 중요하다.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도 잘못하였다. ①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인도없이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서원하였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감정이 고조되어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째로 드리리라’고 서원했는데 결국 자신의 딸을 번째로 드리게 되었다. 쓸데없는 서원이다. 감정따라 고백하거나 서원하지 말고 언약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번째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더라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옳다. 세상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예배드리시기 바란다. 예배실패는 인생실패다. 예배성공자는 인생성공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자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이다. 하나님은 한없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체험하여야 한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감사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② 기드온은 우상을 허용하고 직접 우상을 만들었다. 사사기 8장 27절에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종교적인 물건,

에봇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겼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다. 목사님이 비싼 시계, 옷, 차 타고 다니면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든다. ③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대부분 자기 욕망, 여자에 대한 호색과 복수에 이끌려 행동하였다. 삼손의 머리칼에서 나오는 힘은 단지 상징이지만, 그 비밀도 지키지 못해 간음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뻘뻘 우상신전에서 죽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도자여도 잘못하면 벌하신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은 마지막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복수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뻘 붙세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복음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인데 삼손은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삼손은 힘만 썼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와 같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모두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신앙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러분은 하면서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가 넘어지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넘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상황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 즉 사사기를 주신 복음적인, 영적인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 사사기에는 죄, 징계, 회개, 구원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의롭고 순종할 수 없으며 반복해서 타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즉 인간은 율법이나 외적 환경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며, 내적 구원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이 죄성은 오직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롬3:23-24)

(2) 사사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자비를 보여준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배반해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은혜, 자비, 신실하심, 인내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딤후2:13, 롬5:8)

(3) 사사기는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통해 완전한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등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모두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구원자였다. 이들은 단지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이다. 참된 구원은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예시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사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완전한 왕이시다. (히10:11-14)

(4) 사사기의 기록목적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삿21:25)”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 얼마나 혼란과 파멸을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갈망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이다(계19:16).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해야 한다(마4:17, 빌2:9-11)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된다면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란다.

(5)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드러낸다. 사사기의 모든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끝남을 강조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울무를 끊고 사탄의 틀과 함정에서 빠져 나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사사의 실패, 불신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개인과 현장과 민족, 세계를 살리도록 하옵소서. 참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 많은 재앙과 전쟁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